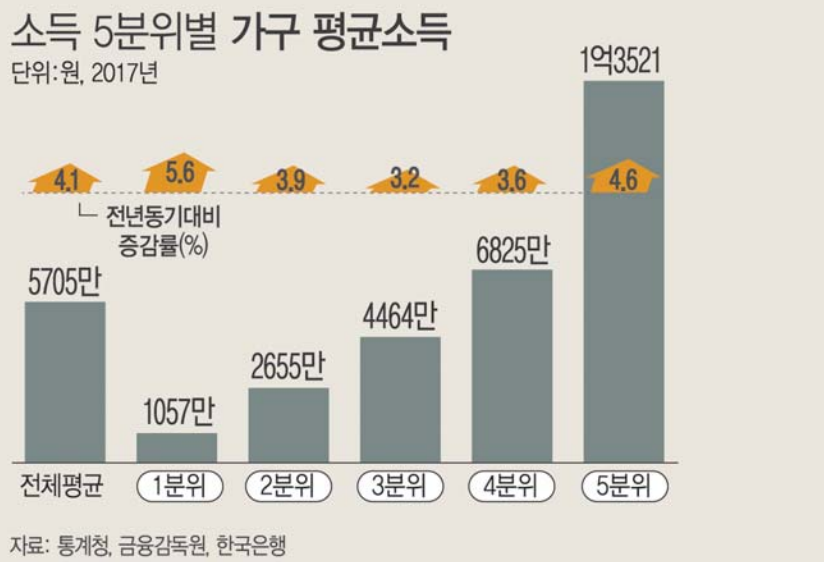


지난해 평균 가구소득 5705만원...5년만에 최대폭 증가

[2018가계금융]

통계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·복지조사
가구소득 전년비 4.1% ↑...2012년 이후 최대폭
하위 20% 계층 소득증가율, 전분위서 가장 최대



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소득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. 20일 통계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

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'2018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 결과'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05만원으로 나타났다. 2016년(5478만원)에 비해 4.1% 증가한 것인데 이 증가폭은 지난 2012년 이후 최대폭이다.

특히 소득 하위 20%인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5.6%로 가장 컸다. 저소득층의 소득증가폭과 관련,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"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지난해 1분위 계층의 고용상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"고 말했다.

상위 20%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분위 다음으로 크게 늘었다.

소득 5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의 47.4% 가량을 차지했다. 이 소득 점유율은 전년 대비 0.2%포인트 증가한 것이다.

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1000만~3000만원 구간이 24.5%로 가장 많았다. 1억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13.9%로 나타났다. 1000만원 미만 가구는 9.3%였다.

연령별로는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1000만~3000만원 구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. 각각 41.3%, 36.0%가 이 구간에 있었다.



30~40대인 가구는 3000만~5000만원 구간 비율이 가장 높았다. 50대 가구는 1억원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.

가구주가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인 가구는 3000만~5000만원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고 임시·일용근로자 가구는 1000만~3000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.

지난해 가구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36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%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124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.2% 증가했다. 공적이전 소득은 7% 내외의 높은 증가가 이어졌다.

소득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율을 보면 ▲근로소득 63.8% ▲사업소득 21.8% ▲재산소득 7.4% ▲공적이전

소득 6.1% ▲사적이전소득 1.0%로 나타났다.

세금, 사회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인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1037만원으로 전년 대비 8.2% 증가했다. 비소비지출 중에선 세금이 전년 대비로 11.7%, 두 자릿수나 올랐다. 가계대출 등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4.9% 올랐다.

가구당 부채 7531만원... '40대·임시일용직' 빚 급증

우리나라 가구가 짊어진 빚이 큰 폭 늘어 평균 7531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. 부채 증가세는 '경제허리'인 40대와 임시·일용직 가구에서 두드러졌다.

통계청과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이 20일 공동 발표한 '2018년 가계금융·복지조사'에 따르면 올해 3월말

이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 카드 관련대출 등 금융부채가 평균 5446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72.3%를 차지했다.

1년 전에 비해서는 40만원(8%) 증가한 수준이다. 나머지 부채인 임대보증금도 20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만원(1.3%) 늘었다.

던 50대(8602만원) 수준을 추월했다. 50대 부채는 되레 1년 전보다 0.8% 감소했다. 30대 가구주의 부채도 13.8% 늘어난 7873만원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.

30~40대 부채가 늘어난 것은 빚을 내 주택 마련 등에 나선 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지난해 폭증했던 30세 미만의 청년층 부채는 2397만원으로 전년 대비 0.2%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주춤해졌다. 60세 이상 고령층 부채는 5385만원으로 3.6% 늘었다.

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·일용근로자의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. 상용근로자 부채(8888만원)는 1년 전보다 9.1%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부채는(3350만원) 14% 늘었다.

부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이다. 자영업자 부채는 전년보다 2.4% 늘어난 1억4399만원으로 규모로 압도적 1위였다. 무직 등 기타 종사 가구주의 부채도 3947만원으로 4.3% 늘었다.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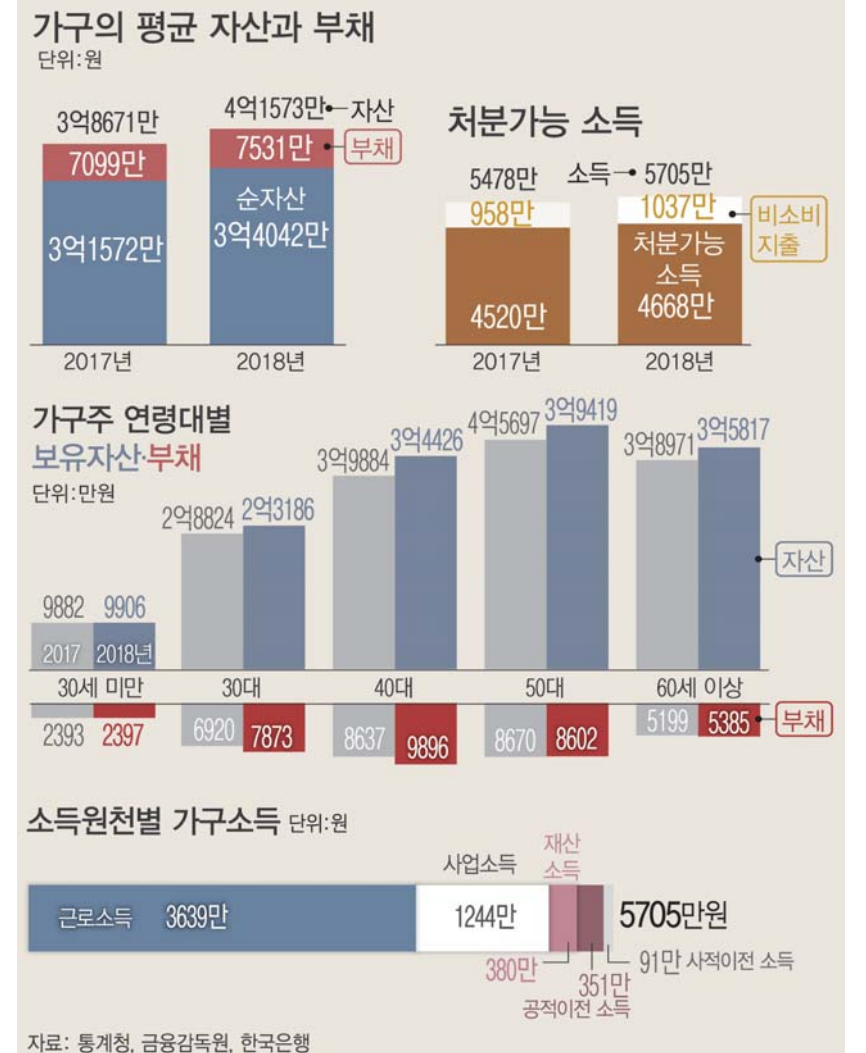
하는 소득 5분위(상위 20%) 가구주의 부채가 8.8% 늘어난 1억6871만원으로 조사됐다.

증가율도 가장 높았고 규모도 가장 컸다. 소득 1분위(하위 20%) 가구주의 부채는 1579만원으로 4.3% 늘었으나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.2%로 0.1%p 축소됐다.

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소폭 나아졌다.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.1%로 지난해보다 0.2%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. 금융부채가 늘긴 했으나 평균 자산(4억1573만원)도 지난해 수준(3억8671만원)보다 7.5% 증가한 영향이다.

전체 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56.9%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. 이들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7.8% 늘어난 9566만원이었다.

소득은 평균 6522만원으로 조사됐고, 자산은 4억595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들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7.3%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. 다만 1년 전 수준에 비해서는 0.5%p 줄었다.



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...가구당 평균부채 7531만원
경제허리 40대, 임시·일용직 가구 부채 급격히 증가

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지난해(7099만원)보다 432만원(6.1%) 늘어났다. 부채를 지닌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.2%p 증가한 63.7%로 집계됐다.

빚은 40대 가구에서 큰 폭 불어났다. 이들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9896만원으로 지난해(8637만원)보다 14.6% 급증했다. 그동안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했

지역공감 마케팅조성본부
湖南新聞
 전화 062)224-5800
 팩스 062)222-5548

한국언론진흥재단
Korea Press Foundation

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

가짜뉴스

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

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
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
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.